

DJP “강남 공천해 주겠다” ... 그래도 사양한 이유

(1998년 국회의원 재보선)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나는 정치권에 들어가 직접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정부를 떠난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정부-여당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구 어느 지역에 출마해줄 것을 권유했다. 해당 지역 사전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줬다.

그러나 “내 비교우위는 정치에 있지 않다. 정치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 민간 부문에서 지금 하는 정부와 기업에 도움이 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두면 좋겠다”는 말로 거듭 사양했다. 그 이후에도 선거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도 된다고 하며 정부-여당 최고위원의 뜻을 재차 기조했다. 하지만 당락과 관계없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 이후 98년 국회의원 재보선직 때로 기억된다. 소위 DJP연합의 박대준 총재가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 이어서 당 고위 인사들은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어느 지역에 출마를 권유했다. 물론 사양했다.

93년 세계경제연구원(IGE) 창설 이래 IGE의 각종 행사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열린 수많은 국제회의의 참석으로 바쁘게 지냈다. 그러던 중 98년 4월에 김대중 정부로부터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유럽연합(EU) 등 총 26개국 정상이 모이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비전그룹 한국 대표로 선임됐다. 당초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총리를 주미 한국대사로 임명하면서 나를 선임한 것이다.

ASEM 비전그룹은 아시아-유럽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98년 4월 영국 런던의 제2차 ASEM 정상회의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로부터 이흥구 전 총리와 함께 비전그룹 위임사항(Tor)을 받았다.

비전그룹은 ASEM 25개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각각 선임한 전직 고위 관료, 유명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학자 등 민간 저명인사 20명으로 구성했다.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대표인 내가 의장직을, 영국의 존 보이드(전 주일 영국대사)가 부의장을 맡았다.

이 그룹은 영국 케임브리지 회의(98년 4월)를 시작으로 싱가포르(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99년 1월), 포르투갈 리스본(99년 2월) 회의를 거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21세기 아시아-유럽 동반자 관계’ 보고서를



■ 2001년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오른쪽 셋째)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권 경제부총리(첫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둘째) 등이 참석했다. ■ 2000년 10월 ASEM 회담회. 왼쪽부터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대수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재관 현대중공업 사장, 조준호 무역협회 부회장. ■ 1993년부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오폴트스톤 궁전에 자리한 미국 살스버그 세미나에서 아시아로 활동한 사공일 이사장. (사진 사공일, 중앙포도)

99년 3월 마련했다. 아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정치-안보 대화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권고안이 포함됐다.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외경제통상대사에 연이어 임명됐다. 대외경제 통상대사로써 2002년 5월에 영국 런던과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차례로 방문해 주로 그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갖고 주요 언론 매체에 한국 경제를 소개했다. 당시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모범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인텔, 파이어즈 등 120여개 주요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었다. 아일랜드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01년에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임명도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3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원로경제인회의(조순-나용배 전 부총리 등 9인) 위원으로 임명됐다. 수차례의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와 오전회의가 있었으나 정치 상황 변화와 당시 조순제 경제보좌관이 주영국 대사로 보임됨에 따라 특별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88년 정부를 떠난 이후 나는 우리나라 주도의 ‘한-미 현자 회의’ ‘한-미 21세기 위원회’ ‘한-중-일 30인 회의’와 ‘삼각 회의’(미국-유럽-아시아), ‘브레튼우즈 위원회’ ‘세계 정책 회의’ ‘G7 위원회’ ‘아시아-퍼시픽 그룹’ ‘북

키 연합’ 등 미국과 주요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주요 기업 CEO로 구성된 다양한 국제 민간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93년에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더욱 유명해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오폴트스톤 궁전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살스버그 세미나(현 살스버그 글로벌)의 이사회 이사(1993-97년)와 선임 펠로 위원회 위원(97년 이후)으로 활동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교육-기부로 하와

이 호놀룰루에 설립한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의 자문위원(1997-2002년)과 이사회 이사(2002-2013년)로 활동했다. 남태평양 총리와 김민재 부총리에 이어 내가 97년 이사를 맡았다. 미국 측 이사인 톰 폴러 전 미국 하원의장, 빌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진 클리 백악관 대통령 인보보좌관 등과 함께 활동했다. 미국과 더욱 친해질 기회가 되었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의 국제 금융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98년 9월 미국 의회 주도 ‘멜트저(Meltzer) 리포트’가 나왔고, 미국 외교협회 주관으로 ‘국제 금융체제의 미래’ 리포트가 나왔다. 주로 G7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국 입장에서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포드 재단이 신용경제국(재부국)의 입장에서 국제 금융체제 개편안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의했다. 99년 12월 국제 민간기구인 글로벌 개발 네

트워크 주최로 독일 본에서 열렸던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 논의, 어떻게 됐나’ 회의에서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기존의 금융체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포드 재단 인사가 토론 후에 내게 제의한 것이다.

포드 재단은 현자 그룹 인선과 예산 편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했다. 단지 아프리카 전문가와 여성 위원을 현자 그룹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먼저 전문가 물색에 나섰다. 금융이론에도 밝은 학자 출신으로 정부에서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인도와 인근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을 물색했다.

다행히도 마침 하버드대에 공공정책 강의를 맡고 있던 아프리카 가나의 전 재무장관을 찾아냈다. 그리고 여성위원으로 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 루즈 드 키리보이 박사도 찾았다. 인도 대표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인 인도 재무장관 역임 후 당시 인도 야당 총재로 활동하고 있던 만모한 싱 박사를 초청해 가까이 응했다. 싱 박사는 나중에 인도 총리(2004-2014년)로 선출된 인물이다.

가나-브라질-멕시코-베네수엘라-칠레-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자들로 ‘비 G7 현자 그룹’을 구성했다. 내가 그룹 의장을, 로베르토 쉐러(미 시카고대 박사) 전 칠레 중앙은행 총재가 부의장을 맡기로 했다.

보고서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G7,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지지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비종 있게 다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맨처 위원회에도 참여했고, 외교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프레드 버그스텐과 폴 볼러 전 미국 연준(Fed) 의장을 먼저 초청했다. 그리고 세계은행 부총재와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조셉 스티글리츠(2001년 노벨경제학 수상) 등 유명 인사 6명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했다.

소규모인 IGE만으로는 부족해 대외경제연구원(이경태 원장)과 공동으로 예산 총액 25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양준준 박사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다.

2000년 7월부터 서울, 칠레 산티아고, 미국 뉴욕에서 전체회의와 자문위원회를 거쳐 2001년 10월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신용국 현자 리포트’를 펴냈다. 선진국 금융 규범만 강요하지 말고,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본 이동을 규제하고, 달러-유로 등 주요 통화의 환율 안정에 나서는 등 33개 제안을 담은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담은 일명 ‘서울 리포트’로 불렸다. 포드 재단은 리포트 홍보를 프레드 버그스텐의 PII에 위탁했다. 워싱턴DC 소재 내셔널레스센터(NPC)에서 보고서 주 내용을 쉐러 박사와 함께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사설에서 거론했고,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다.

다행히 서울 리포트는 이후 국제 금융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관련 국제회의에서 신용경제국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Asia-Europe Vision Group
Calls for 'Free Trade' by 2025

As the 21st century unfolds, the Asia-Europe Vision Group is calling for a "Free Trade" by 2025. The group, which includes leaders from 25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believes that free trade i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y are urging governments to remove trade barriers and create a more open and integrated market.

For A Better Tomorrow: Open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KEP / Sponsored by KOFIATA

The Asia-Europe Vision Group is calling for a "Free Trade" by 2025. The group, which includes leaders from 25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believes that free trade i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y are urging governments to remove trade barriers and create a more open and integrated market.

199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ASEM 비전그룹 회의
를 다룬 언론 보도. (사진 사공일)